

사회

# 아동·청소년 성 범죄 수사 전문화 시급하다

### 광주·전남 4일에 한 번 꼴...연령·수법 등 체계적 관리 소홀

최근 부산에서 납치된 여중생이 11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국민적인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 성폭행 사건 수사에 대한 전문화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동 성폭행의 경우 지난 2007년 '안양초등학교 살해사건'과 지난해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아동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대응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경찰은 아동 성폭행 사건의 발생 건수만 파악하고 있을 뿐,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미제 건수나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의 범죄 관리시스템이 범죄 형태에 따른 관리만 할 뿐 연령별 성폭행 범죄에 대한 관리 및 추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 성폭행 피해자는 사건이 미제로 남을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이 범죄의 후유증에 시달려야 하고, 추가범죄 발생 차단을 위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현재 검·경이 시행 중인 16세 이하 성폭행 피해자

에 대한 '진술 녹화' 규정 등이 보다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A양은 검찰 조사에서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인해 '영상 녹화'를 위한 진술을 내 차례나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한편 광주·전남은 지난해 나흘에 한 번 꼴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데다 인구 100만명당 '아동성범죄 신고건수'의 비중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사건은 각각 48건, 37건에 이른다. 광주·전남을 합하면 모두 85건으로, 4.3일 당 한 번 꼴로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했다.

광주·전남의 '아동성범죄 신고건수'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도 검·경의 아동 성폭행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남에서 범인에 의해 신고건수가 결정된 아동 성범죄 수는 31명이고, 인구 100만명당 16.2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의 100만명당 '신상공개자' 수(4.2명)의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광

주도 100만명당 '신상공개자' 수가 14명으로, 전남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목포 교도소 교도관 기소**

**재소자 편의 제공 돈 받아**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9일 재소자로부터 돈을 받은 목포교도소 전 교도관 강모(5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중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씨에게 돈을 준 재소자 김모(45)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를 통해 강씨에게 돈을 건넨 다른 재소자 4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강씨는 2008년 11월부터 1년여간 특별점검, 휴대전화 사용 등 수행 생 활 중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소자들이 준 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교도소는 기소 전 자체 감찰을 통해 강씨를 파면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광주천에 빠진 화물트럭** 9일 오전 광주시 남구 사동 사직공원 입구 경사로에 정차된 전남86바 41XX호(운전자·한모·30) 4.5t 화물트럭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광주천으로 빠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전남 장애인협회장 지원금 1억 '꿀꺽'

### 아내 '유령직업' 만들고 저소득층 체험비 부풀려

### 목포경찰, 학생 명단 넘겨준 초등학교 교사 입건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착복한 장애인협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목포경찰은 9일 장애인들을 위해 쓰도록 한 국가 지원금 1억여원을 빼돌린 전남 장애인협회 김모(44) 회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 회장과 함께 지원금 일부를 빼돌리거나 범행을 도운 혐의 이 협회 박모(44) 사무처장과 경리사원 김모(여·29)씨를 불구속 입

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3년간 협회에 근무하지도 않은 자신의 부인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23회에 걸쳐 120만원씩 2천700여만원을 빼돌리고, 사무실 임대료 360만원을 횡령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지원금 1억1천여만원의 일부를 빼돌리거나 범행을 도운 혐의 이 협회 박모(44) 사무처장과 경리사원 김모(여·29)씨를 불구속 입

만원을 지원받아 '문화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학생 문화체험비를 부풀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원금의 일부를 빼돌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회장에게 저소득층 학생 명단을 넘겨준 목포 모 초등학교 교사 박모(39)씨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교육청에 계경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은 장애인협회 공금 횡령 사건이 다른 지역 협회에서도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장성서 돈사 화재 3천만원 피해

9일 오후 1시10분경 장성군 서산면 대덕리 임모(54)씨의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촉수 6개 동 가운데 1개 동(396㎡)이 전소했으며, 어미돼지 40마리와 새끼돼지 600여 마리가 불에 타 죽어 소방서 추산 2천8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카바레서 80노인인 60대 폭행

○대낮에 카바레에서 춤을 추던 80대 노인인 60대 노인을 폭행해 경찰사형.

○광주동부경찰은 9일 카바레에서 춤을 추던 중 옆에 있던 노인이 "몸을 자주 부딪힌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린 김모(83)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오후 4시 자신의 부인과 함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모 카바레에서 춤을 추다가 옆에서 춤을 추던 이모(65)씨가 몸을 부딪히자 밀어뜨렸다는 것.

○경찰에서 김씨는 "한 두번이 아니라 계속 부딪히니까 화가 나서 단 순히 밀었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이씨는 "넘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때렸다"며 처벌을 요구.

/김철호기자 khh@kwangju.co.kr

### 5·18 유인물 배포 '아람회 사건' 피해자에

## 이자 포함 206억 배상

###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11부(김문석 부장판사)는 9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모 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3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86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은 과잉배상이라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 등이 제삼 대상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점을 감안해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제삼 대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27~28

년 전으로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총 2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씨 등은 1980년 6월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등의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충남 금산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2~1983년 징역 1년6월~10년 이 확정됐으며 1983년과 1988년에 특별사면·복권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씨의 딸 아람 양의 백일 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 결성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때문에 '아람회 사건' 피해자로 불리게 됐으며 작년 5월 서울고법에서 재심 끝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 '보성 어부' 항소심서도 사형 선고될까?

### 현재 사형제 합헌 결정

### 광주고법 내일 첫 심리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보성과 영암 살해사건의 범인들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보성 앞바다에서 관광객 4명을 죽인 혐의(살인)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부 오모(72)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는 11일 이 법

원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 심리로 진행된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일에는 영암에서 사실혼 관계의 아내 등 3명을 성폭행, 살해하고 친딸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모(44)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마쳤다.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사형수 59명 가운데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오씨와 이씨뿐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위장결혼' 외국인 여성 등

### 전남경찰, 10명 구속·입건

전남지방경찰청은 9일 취업을 위해 돈을 주고 내국인과 위장결혼한 중국인 L(여·42)씨와 베트남인 Y(여·25)씨 등 2명을 공안자극등불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외국인 여성, 남편 역할을 한 내국인, 알선업자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2007년 국내취업을 위해 국제위장결혼 알선업자에게 1천만원을 주고 한국인 남성과 허위 결혼하고 나서 경기 지역 플라스틱 공장 등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PEET / MEET / DEET 전문학원

[약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MDPass 전문학원 출신이 아니라면 합격은 어렵다"** 이 한마디를 위해...

<p><b>심화과정</b> 개강 3월 2일</p> <p>단일명 기술문제 풀이 개강 5월 3일</p> <p>FINAL 다선문제 풀이 개강 7월 5일</p>	<p><b>특설1 기초시작반</b></p> <p>과제물 완성 2010년 1월 시험 대비반 2011년 1월 시험 대비반 EPR 관례에 철저한 선·후배들</p> <p><b>개강: 3월 2일</b></p>	<p><b>특설2 기초영어</b></p> <p>공정평가 100%, 100%의 고득점 취득을 위한 초·중·고·대 2~4주 기초과정 1~4주 고급과정 중·고·대 12주 특강반 12주 반영 14시간, 1회 4시간, 1회 4시간</p> <p><b>개강: 3월 8일</b></p>	<p>검정원 최고와 강사원의 박력 출강 강의</p> <p><b>특별초빙</b></p> <p>과목: 일반생물학 (특히 분자생물학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의 교수님을 특별 초빙합니다)</p>
---	---	---	--

## MDPass 전문학원

광주 263-5453, 430-2200    전주 255-9119  
mdpass.co.kr (광주 북구청 맞은편)